

“남에게 좀 지고 살면 안될 일 없어요”

현성 스님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총재)

홍은동에 위치한 현성정사로 가는 길에는 장미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 오고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괜스레 설레게 만들었다. 갖가지 빛깔의 장미꽃들에게 망설임 없이 마음을 내주면서 길을 걸었다. 저렇게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음을 애달파 하지 말고 저토록 날카로운 가시나무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었음을 장하게 여겨야 한다는 어느 시 한 구절을 떠올렸다.

현성 스님은 ‘백미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의 눈썹이 하얗다고 해서 백미스님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스님은 양로원을 비롯하여 불우한 사람들에게 쌀 보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불여진 별칭이기도 하다.

“80년에 도선사 주지를 맡았어요. 12년 동안 주지소임을 맡아 일했는데 여름철에 홍수가 나서 수재민이 발생하거나 하면 구청장보다 먼저 현장에 달려가서 쌀을 건네주었지요. 그리고 매년 부처님오신날이나 추석 설날이 되면 도봉구청에 80킬로그램 짜리 쌀 50가마를 보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하여 불우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했어요.”

현성 스님은 독거노인들에게 쌀 70가마를 보시하기도 했으며, 79년부터는 안양교도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법문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때마다 매년 해오는 일이기는 하지만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도 2600여명이나 되는 전 재소자들에게 빵과 두유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설날에는 떡국을 대주고 있으니 백미스님이라 불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성 스님은 부산 선암사에서 11년 동안 머물면서 선방에서 가부좌 틀고 깨달음을 얻겠다는 일념으로 공부하였고, 또 1000일 기도를 무사히 마쳤다.

“선암사 선방에서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석암 큰스님을 찾아 갔지. 석암 큰스님께서 나를 보시더니 여기는 선방이라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나무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지. 방부 들어도 좋다는 석암 스님의 허락이 떨어지기에 어찌나 좋던지... 가난한 시절이라 몸에 이도 많고 그랬어요. 한 겨울인데도 누비 두루마기가 있나, 내복도 한 벌 밖에 없어 껌입을 옷이 있어야지. 추위에 떨면서 공부해도 참으로 신심이 절로 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21일 용맹정진에 들어갔지. 며칠동안은 잠을 못 이겨 고생했지만 그 고비를 넘기니 잠을 자나 안 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27명이 용맹정진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일곱 사람만 남게 되네요. 21일 용맹정진을 하고 나니 내가 봐도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선가에서는 선방 문고리 잡아 본 사람하고 안 잡아 본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한 철 살고 나니 석암 큰스님께서 산철에 백일기도 할 수 있느냐고 하시길래 그 길로 11년 동안 선암사에 머물렀습니다.”

석암 스님이 열반하실 때 ‘범망경강의목’과 ‘오계책자’를 받았고 그래서 현성 스님은 석암 스님의 법제자가 되었다. 선암사에서 공부한 것이 평생을 두고 수행자로서 살아가는데 버팀목이 된다고 하니 참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현성 스님은 도선사 주지를 12년 동안 맡으면서 많은 불사를 한것으로도 유명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80년대 초에 새마을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내무부장관인 노태우씨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 인연으로 해서 도선사 증축을 할 수 있었지요. 그때 도선사는 군사보호지역에다 그린벨트에다 국립공원이라서 돌 하나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할 정도로 규제를 받고 있었어요. 열 몇 평에 불과한 대웅전과 요사채를 조금 넓힐 수 있었고 일주문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사찰의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우리들 눈에는 불사가 그냥저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현성 스님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님은 도선사 주지소임을 맡았을 때 전방부대에 법당을 13개 정도 지었다. 국방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부족한 자금은 절에서 보조를 하는 정도였지만 일년에 80명 되는 법당을 하나씩 만들어내니 주위에서 현성 스님을 두고 ‘별 세 개쯤은 달아도 된다’는 우스개 소리를 하였다. 보살들과 함께 밤새도록 떡을 만들어 군부대 일용법회에 가는 등 그때 참으로 신바람 나게 일하였다는 말씀을 덧붙였다. 현성 스님은 63년에 출가하여 약 40년 세월동안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을 순리대로 처리하기 때문이라한다. 지금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이며, 한국 청소년학회 이사장인 스님은 어떤 일보다도 인재발사를 우선시한다.

“청소년은 불교의 기둥이요 희망이요 회망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은 불교의 등불행사를 할 희망인데 정성을 쏟아야지요. 청소년들에게는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큰 그릇 만드는 인성교육이 중요 합니다. 그것을 우리 불교가 해야 합니다.”

청담 스님의 상좌인 스님은 은사스님 모시고 시래기죽을 먹고 살면서 하루에 나무 넝름씩 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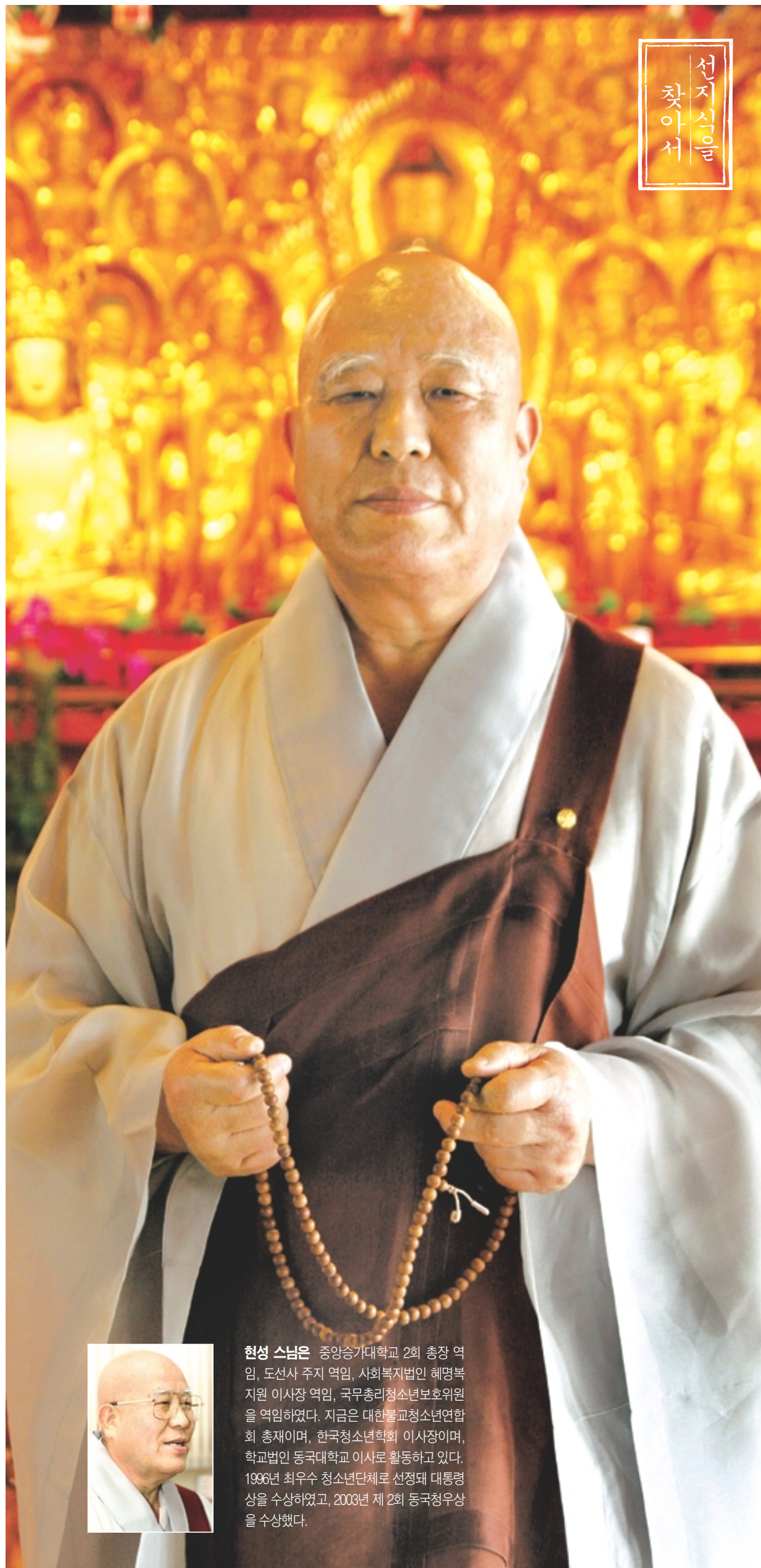
를 때가 그래도 가장 좋았다고 한다.

“청담 스님이 몸이 아파 한쪽으로 풍이 왔어요.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내가 우이동까지 마대포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하루는 깔딱고개에서 쉬고 있는데 청담 스님이 ‘내가 불교 정화한다고 원경을 맺은 사람이 더러 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나타나 나를 때린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물었어요. ‘아니 스승이 맞고 있는데 가만있을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때려주어야지요’ 하고 대답했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다. 너는 합장하고 나무야 미타불 염불하고 있거라. 나하고 그 사람하고 악연이 있어 내가 당하고 있는데 너는 나설 이유가 없다. 앞으로 큰 중노릇하려면 남에게 좀 지고 살아야 한다. 지는 순간은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나중에 그것이 승리하는 그 도리를 알아야 한다.’ 청담 스님의 이 말씀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받들고 있어요. 남한테 좀 지고 살면 세상에 해를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남에게 좀 지고 산다는 것은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인욕바라미이다. 평생을 두고 쌀을 보시하여 ‘백미스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스님이야말로 육바라미 가운데 보시바라미와 인욕바라미를 몸소 실천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스님은 ‘지금 여기에’ 살 것을 강조하신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현재 내가 나눌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나누는 버릇을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현성 스님



선지식을 찾아서

“ 청소년은 불교의 기둥이요 희망 일방적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큰 그릇 만드는 인성교육이 중요 ”



현성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 2회 총장 역임, 도선사 주지 역임,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이사장 역임,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을 역임하였다. 지금은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이며, 한국청소년학회 이사장이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1996년 최우수 청소년단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2003년 제 2회 동국청우상을 수상했다.

2006 대한민국 여성총장도 우수상을 수상(한국일보)
2005 박스도 인노베이션 기업수상(서울)
매일형 웰빙건강 및 상품브랜드

www.magtorin.com

MASTERPIECE OF THE WELLBEING COLLECTION
아주 특별한 선물
마·그·토·린

다가오는 5월 부모님과 은사님께 드리는 효도, 보은, 감사, 사랑의 선물은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로 준비하세요
이제, 소중한 분께 건강을 먼저 선물하세요!

Magtorin Jewelry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는 스테인레스 (또는 신주) 안쪽에 패러다임 자기장을 첨가하고 용이온이 생성되는 포르마린 실리콘밴드를 결합한 후 원적외선 에너지를 포집한 아이디어 퓨전 웰빙 제품으로 착용감이 좋고 디자인이 고급스러우며 코디하기가 쉽다.

단체 주문시 로고 혹은 미니셀 색인 가능
단, 주문은 마그토린 고객센터로 연락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마그토린을 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제품 사이즈-남(어)-
S : 17.5cm(16.5cm)
M : 18.5cm(17.5cm)
L : 19.5cm(18.5cm)
주문시 사이즈 선택

MT 204T ₩86,000
MTB 207G ₩98,000
MT 203G ₩79,000
MTB 206T ₩98,000
MT 205G ₩86,000

제조 및 판매: 서원SNKO | 제품문의: 02-568-1117 | 국민은행: 443101-01-057676(예금주:최민경)